

박인비 20승 달성... 올림픽 출전 '청신호'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오픈 최종 14언더파 278타 2018년 3월 이후 준우승만 5번... 1년 11개월 만에 우승

박인비(3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에 올랐다.

박인비는 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턴의 로열 에들레이드 골프클럽(파73·663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2위 에이미 울슨(미국)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 3000만원)를 받은 박인비는 2018년 3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다시 L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2008년 6월 US오픈에서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이로써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 25승의 박세리(43·은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 관문을 돌파했다.

현재 세계 랭킹 17위인 박인비는 이날 우승으로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밝혔다.

올해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면 6월 세계 랭킹에서 전체 15위 내에 들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4위 안에 진입해야 한다.

현재 박인비는 한국 선수 중에서는 고진영(1위), 박성현(2위), 김세영(6위), 이정은(9위), 김효주(12위)에 이어 6번째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앞서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면 상반기에 2승 정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약 2년 만에 우승 물꼬를 트면서 올림픽 2연패 가능성을 부풀렸다.

3라운드까지 2위 조아연(20)에 3타 차 선두를 달린 박인비는 첫 홀을 보기로 시작했다. 게다가 조아연이 3번 홀(파4)에서 먼저 버디를 잡아 박인비를 1타 차로 압박했다.

그러나 박인비 역시 같은 홀 버디로 응수하며 다시 2타 차로 달아났

고. 이어 4번 홀(파4) 연속 버디로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다.

조아연은 이후 4, 6, 7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적어내며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다.

한때 2위에 6타 차로 넉넉한 리드를 잡은 박인비는 중반 이후 류위(중국)에게 2타 차로 쫓기기도 했다.

그러나 기세를 올린 류위가 16, 17, 18번 홀에서 3연속 보기로 제풀에 무너졌고, 박인비는 17번 홀(파5)에서 채기를 날리는 버디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갈랐다.

지난주 빅오픈에서도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날 9타를 잃고 16위로 밀려났던 조아연은 이번 대회에서는 3라운드까지 2위였다가 이날 동 4타를 잃고 공동 6위로 내려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박인비의 4라운드 경기 모습. 신중하게 그린을 살피며 퍼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Utd 2020시즌 선수단 배번 공개

자율적 협의 통해 배번 확정 주장 이창민·아길라르 변경

프로축구 K리그2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의 2020시즌 선수단 배번이 공개됐다.

제주는 선수들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배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선수들의 등번호 변화다. 1부리그 승격을 향해 심기 일전하고 선수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한 결과라는 게 구단의 설명이다.

주장 이창민은 기존 14번에서 등번호 8번을 달고 뛰는 14번은 그의 절친한 선배 김영욱이 달았다. 연령별 대표와 전남 시절부터 14번을 애용했던 김영욱을 위한 이창민의 배려인 셈이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마음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길라르는 23번에서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으로 등번호를 바꿔달고 새 비상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시즌

에서 'K리그 컷 10대 도움 해트트릭'을 달성한 서진수는 28번을 떼고 윤일록(24번)의 공백을 메우겠다 각오로 등번호를 이어받는다.

제주에서 처음 시즌을 보내는 선수들도 기존 선수들의 배려로 모두 선호하는 등번호를 달았다. 정조국(9번)과 공민현(19번), 발렌티노스(4번), 조성준(7번), 윤보상(1번), 주민규(18번), 임동혁(20번), 박원재(33번), 김재봉(40번) 등이다.

제주는 등번호를 공개하며 12번째 선수인 팬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남겼다. 공식 SNS를 통해 팬들이 제주 유니폼을 입고 찍은 '등' 사진을 모아 2020시즌 제주 선수단 등번호 공식 이미지로 활용한다.

남기일 제주 감독은 "선수단 배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팀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심기일전하는 각오가 엮였다"며 "특히 등번호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든든한 등을 빌렸는데, 이 든든함을 잊지 않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지난 15일 렛츠런파크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토요일마 제1경주(10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라스타'와 문현진 기수의 모습. 오라스타는 이날 승리로 4연승을 이어갔다. 사진=렛츠런파크 제주 제공

제주마 '오라스타' 4연승 질주 '백호평정' 자매마... 관심 집중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는 제주마 '오라스타'(3세 암말)가 데뷔 이후 4연승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라스타는 지난 15일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토요일마 제1경주(1000m)에서 우승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주에서 문현진 기수와 호흡을 맞춘 오라스타는 경기 초반 힘을 아끼며 2위권에서 경주를 이어가다 결승선 전방 약 200m 지점부터 2-3위와의 거리를 무섭게 벌리며 결

승선을 맨 먼저 통과했다.

이러한 기록이 눈길을 끄는 것은 오라스타가 지난해 3세 최고 제주마에 등극한 '백호평정'과 자매마이기 때문이다. 백호평정은 지난해 데뷔 이후 9연승과 함께 제주마추경회장배, 제주마더비, 제주도시사배 클래식 대상경주 3관왕 기록도 가지고 있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경마는 혈통 스포츠로 불릴 만큼 좋은 유전자와 곧 명마 탄생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며 "오라스타가 지난해 제주마 경주를 평정한 백호평정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강성훈, 특급대회 선두 경쟁... 3R 3타차 8위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7언더파 206타 선두권 버디 5개 뽑으며 부진 탈출... 역전 우승 불씨 살려

강성훈(32·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특급 대회로 격상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사흘째 선두권을 달렸다.

강성훈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쳤다.

중간합계 7언더파 206타로 사흘째 경기를 마친 강성훈은 공동선두 그룹에 3타 뒤진 공동 8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는다.

이번 시즌 들어 한 번도 톱10 입상이 없고 10개 대회에서 20위 이내 진입도 두차례에 그쳤던 강성훈은 이 대회에서 부진 탈출을 예약했다.

코스 난도가 전날보다 높아졌지만, 버디 5개를 뽑아냈다.

버디 4개를 잡아내 3타를 줄인 채 전반을 마친 강성훈은 14~16번홀 연속 보기로 아쉬움을 남겼다.

강성훈은 "1번홀과 3번홀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반드시 버디를 해야 할 10번, 11번홀에서 버디를 못해 흐름이 끊긴 듯했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18번홀(파5)에서 5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게 4라운드를 앞두고 위안이 됐다. 강성훈은 "18번홀에서 버디를 해 (선두와) 3타차가 됐다"면서 "챔피언십에서 치열하게 치는 것보다 이 위치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세계랭킹 1위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와 전 세계랭킹 1위 애덤 스콧(호주), 그리고 맷 쿠처(미국)가 나란히 10언더파 203타로 공동선두에 나섰다. 연합뉴스

황의조, 디종전서 리그 5호골 이번에도 헤딩... 2경기 연속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의조(28·지롱댕 보르도)가 올 시즌 리그 5호골을 터트렸다.

황의조는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마뮈 아틀랑티크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랑스 정구리그(리그앙) 25라운드 디종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0-1로 끌려가던 전반 35분 헤딩으로 동점골을 터트렸다.

토마 바시치가 차출된 코너킥을 황의조가 골문 앞에서 뛰어올라 머리로 방향을 틀어 디종 골문을 열었다. 황의조의 올 시즌 리그 5호골이다.

지난 6일 브레스트와 원정 경기(1-1 무승부)에서 선제 헤딩골로 약 3개월 만에 골 맛을 봤던 황의조는 두 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최근 두 골 모두 머리로 만들어냈다. 경기는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황의조는 84분을 뛰고 후반 39분 야신 아드리와 교체됐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승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서호초 40회, 사대부고 88회)
(사법시험 44회, 사법연수원 34회)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五友會(김경관, 김광석, 김병철, 문종철, 허호식) 一同

축
CONGRATULATIONS
취임
서호초등학교총동문회장



강승욱

서호초등학교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호초등학교 제25회 동창회
회장 허용권 의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진성의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득
교육학박사



윤두호
(前 교육위원)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매형·누님 용림, 용안, 용성, 용철,
형도, 형주, 지미 가족일동